

# 제2 벤처투자시대를 열기 위한 우리들의 자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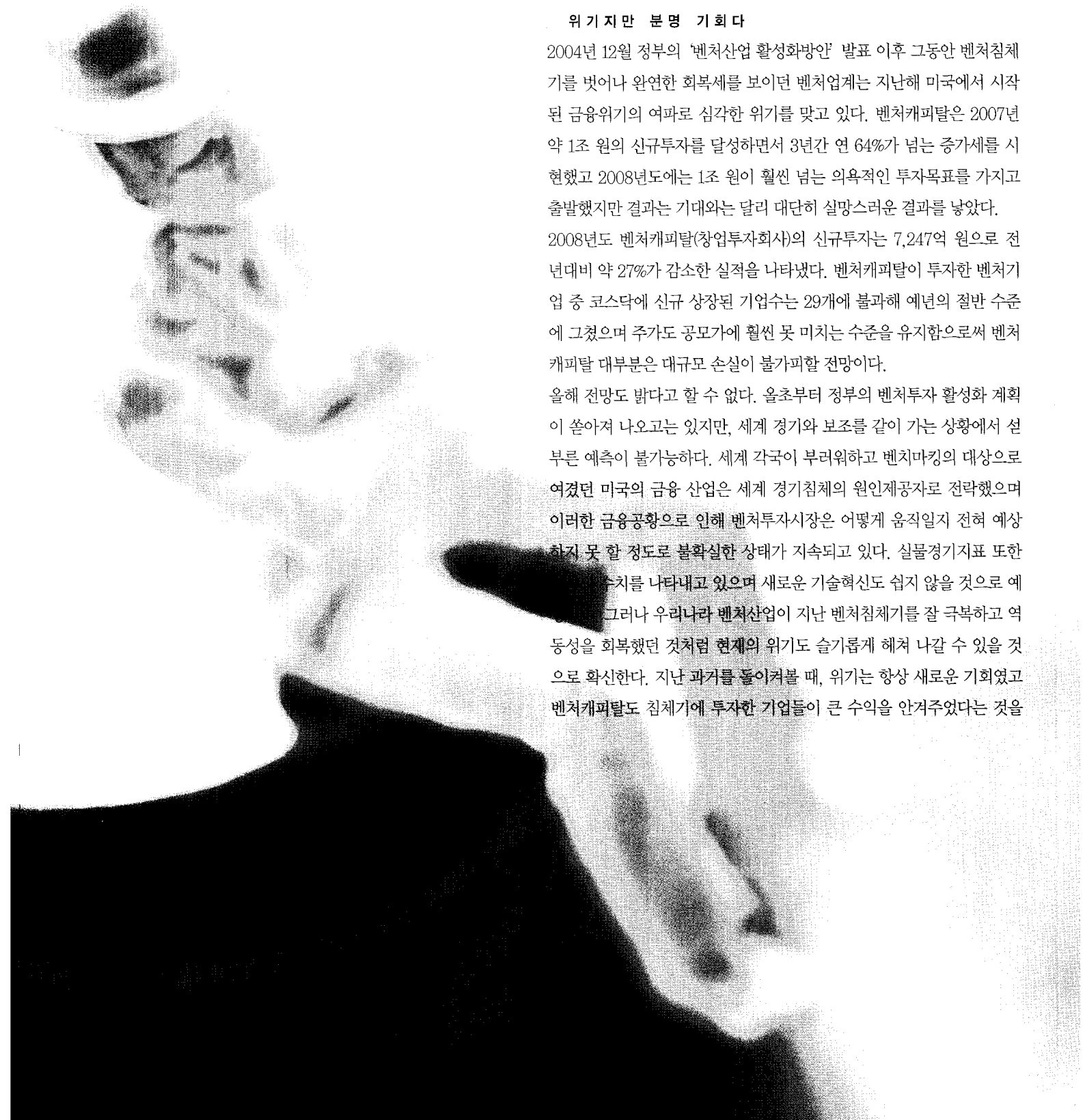
글\_ 도용환(한국벤처캐피탈협회장)

## 위기지만 분명 기회다

2004년 12월 정부의 '벤처산업 활성화방안' 발표 이후 그동안 벤처침체를 벗어나 완전한 회복세를 보이던 벤처업계는 지난해 미국에서 시작된 금융위기의 여파로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다. 벤처캐피탈은 2007년 약 1조 원의 신규투자를 달성하면서 3년간 연 64%가 넘는 증가세를 시현했고 2008년도에는 1조 원이 훨씬 넘는 의욕적인 투자목표를 가지고 출발했지만 결과는 기대와는 달리 대단히 실망스러운 결과를 낳았다.

2008년도 벤처캐피탈(창업투자회사)의 신규투자는 7,247억 원으로 전년 대비 약 27%가 감소한 실적을 나타냈다. 벤처캐피탈이 투자한 벤처기업 중 코스닥에 신규 상장된 기업수는 29개에 불과해 예년의 절반 수준에 그쳤으며 주가도 공모가에 훨씬 못 미치는 수준을 유지함으로써 벤처캐피탈 대부분은 대규모 손실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올해 전망도 밝다고 할 수 없다. 올초부터 정부의 벤처투자 활성화 계획이 쏟아져 나오고는 있지만, 세계 경기와 보조를 같이 가는 상황에서 선부른 예측이 불가능하다. 세계 각국이 부러워하고 벤치마킹의 대상으로 여겼던 미국의 금융 산업은 세계 경기침체의 원인제공자로 전락했으며 이러한 금융공황으로 인해 벤처투자시장은 어떻게 움직일지 전혀 예상할 수 없을 정도로 불확실한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실물경기지표 또한 추락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새로운 기술혁신도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우리나라 벤처산업이 지난 벤처침체를 잘 극복하고 역동성을 회복했던 것처럼 현재의 위기도 슬기롭게 헤쳐 나갈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 지난 과거를 돌이켜볼 때, 위기는 항상 새로운 기회였고 벤처캐피탈도 침체에 투자한 기업들이 큰 수익을 안겨주었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의 상황이 분명 투자가 줄고 벤처펀드의 결성도 점점 어려워지고 무엇보다 코스닥시장의 폭락으로 인해 투자, 회수, 재투자로 이어지는 벤처투자의 선순환구조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지만 지난 침체기와는 상황이 매우 다르다는 것은 확실하다. 벤처기업의 기술력과 성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좋아지고 있으며 모태펀드, 연기금 및 기관투자, 외국인이 출자하는 벤처펀드도 양적인 측면에서나 질적인 측면에서 이전과는 다른 양상이고 우수한 기업을 가려내는 벤처캐피탈리스트의 변별력도 확대되고 있다. 또한 벤처투자를 확대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도 침체극복을 앞당기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해 풀어야 할 과제

벤처캐피탈 업계가 시장을 보는 시각은 현재 상황이 위기인 것은 분명하지만 새로운 도약의 기회일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다. 또한 수년 내 연간 2조 원의 투자실적을 목표로 하고 있다. 연 2조 원의 투자가 달성되면 GDP대비 벤처투자비율이 미국 등 선진국과 비슷한 규모가 된다. 그러나 벤처산업이 다시 역동성을 회복하고 연 2조 원의 벤처투자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개선되어야 할 과제도 적지 않다. 현재의 인프라 수준으로는 벤처투자가 획기적으로 확대되기는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우선, 벤처산업과 관련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

정부는 지난해 업계의 건의를 수용하여 벤처투자자와 관련한 규제의 상당부분을 완화하는 조치를 발표한 바 있지만 일부는 아직 법령 개정안이 마련되지 않고 있으며, 일부는 국회심의과정에서 반영되지 못한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 규제를 풀지 않으면 투자환경이 나빠져 결국 국내 기관투자자나 해외자금을 유치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고 결국 더 큰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기 때문이다.

둘째, 벤처투자재원이 확대되어야 한다.

지난해 하반기 이후 금융위기 및 경기침체로 인해 벤처펀드 결성여건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기관투자자들이 위험자산에 대한 출자를 기피하고 있으며 국민연금도 2008년에는 벤처펀드 출자사업을 중단한 바 있다. 정부가 현재의 상황을 비상사태로 인식해 모태펀드의 재원을 확대하는 등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한 지속적인 관심이 요구된다. 모태펀드의 운용도 자금수요가 집중되지 않도록 상시출자를 해주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며 초기투자펀드에 대한 배분이 확대되어야 한다.

셋째, 코스닥시장이 개선되어야 한다.

코스닥시장은 중소·벤처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가장 중요한 인프라라고 할 수 있다. 벤처기업은 코스닥시장을 통해 성장단계에 따라 직접금융 방식으로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며, 벤처캐피탈은 90% 이상을 코스닥시장을 통해 회수하고 있다. 문제는 벤처생태계의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해야 할 코스닥시장이 그 기능을 상실해 가고 있다. 최근 코스닥시장에서 정상적인 유상증자는 거의 불가능한 수준이며 2008년 코스닥에 신규 상장된 기업수는 29개에 불과하다. 그나마 대부분 공모가 대비 30~40% 이상 하락하여 벤처캐피탈 회수시장으로서의 기능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코스닥시장을 1, 2부로 개편해 우량기업만이라도 신뢰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보다 근본적인 개선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벤처투자가 확대돼 현재의 위기를 기회로 바꾸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제도의 개선도 뒷받침되어야 하고 과감한 정책적인 판단과 지원도 중요할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벤처생태계를 책임지고 있는 벤처기업과 벤처캐피탈이 시대상황의 변화를 읽고, 스스로 환골탈태의 노력이 있어야만 새로운 미래도 가능할 것이다.

